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방안

Copyright Possession and Improving Plan of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윤 희 윤* · 이 재 민**
Hee-Yoon Yoon · Jae-Min Lee

차 례

- | | |
|-------------------------------|---------------------|
| 1. 서 론 | 4. 학회지 논문 저작권의 개선방안 |
| 2. 학술정보의 유통동향 개관 | 5. 결론 및 제언 |
| 3. 학회지 논문 저작권의 귀속현황 분석 · 참고문헌 | |

초 록

지난 세기 후반부터 학술지의 지나친 상업화 전략은 학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왔다. 그래서 영미를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저작권문제가 최대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술정보의 요체에 해당하는 학회지를 중심으로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3가지의 대안, 즉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방안,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안, 저자와 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 워 드

학술정보 유통, 학회지, 학술논문, 저작권, 오픈 액세스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Profess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Dept., Daegu Univ., yhy@daegu.ac.kr)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

(Assistant,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Dept., Daegu Univ., cif10401@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2006년 2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 copyright possession of scholarly journal papers which is published from academic society. There are three ways where the author transfers the copyright to a society, the author has the copyright, and the author and society own jointly the copyright. These ways are analyzed with their strong and weak points and then presented the desirable plans.

KEYWORDS

Scholarly Information Communication, Scholarly Journals, Journal Paper, Copyright, Open Access

1. 서 론

일반적으로 학술정보 유통 시스템은 그것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학관계를 매개로 구성되는 거미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통경로가 존재하고 다종다양한 정보매체가 유통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술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류매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학술정보 유통에서 핵심 매뉴로 간주되는 학술지는 지나친 상업화와 가격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전무하거나 미약한 국가, 기관, 도서관, 개인 등의 접근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무료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디지털 학술정보를 인터넷으로 유통시키는, 소위 오픈 액세스(OA : Open Access)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OA의 구체적 인 실천방안으로 저자 셀프 아카이빙(ASA :

Author Self Archiving), 학술기관 리포지터리(AIR : Academic Institutional Repositories) 등이 제안·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픈 액세스 중심의 학술정보 유통전략에서 저작권 귀속주체의 문제가 최대의 쟁점과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 학술정보의 요체에 해당하는 학회지 논문, 환언하면 학술논문의 유통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학술단체에 소속된 대다수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논문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투고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과 규정은 연구자 자신의 무료 공개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에도 상당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일부 영리기관이 학회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한 사실이 반증한다.

이에 주목한 본 연구는 국내 학회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공유 및 오픈 액세스를 위한 ASA와 AIR의 최대 장애요소인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5년 9월을 기준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회(2,161개) 가운데 그 수가 200개 이상인 분야(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에서 각각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하고,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은 홈페이지 분석과 전화 인터뷰로 보완하였다.

2. 학술정보의 유통동향 개관

일반적으로 학술정보(Scholarly Information)는 연구정보 및 과학기술정보와 혼용되거나 대용어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연구정보나 과학기술정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에 속한다. 즉, '학술정보>연구정보>과학기술정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정보 유통의 최근 동향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2.1 학술정보 유통의 국제적 동향

1990년대 중반부터 학술지 가격급등으로 인한 대학도서관 수집자원의 축소와 라이선싱 기반의 제한적인 이용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

자 새로운 학술정보 유통 모델인 OA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회적, 경제,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생산자와 이용자를 직접적인 정보공유 체계로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저자의 비용부담, 이용자의 무료접근, 상시적 접근, 저자의 저작권 보유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OA의 이념과 원칙을 구현하는 단체와 운동으로는 Virginia Tech가 주도한 학위논문의 국제적 공유모형인 NDLTD(Networked Digital Library of Theses and Dissertations), 대안학술지 발간에 주력하는 SPARC(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2001년 12월의 부다페스트 운동(BOAI), 2003년 6월의 베세스다 선언(Bethesda Statement on Open Access Publishing), 동년 10월의 베를린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A to Knowledge on the Sciences and Humanities)과 웰컴 재단(Wellcome Trust)의 선언, 2004년 1월의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선언, 12월의 IFLA 성명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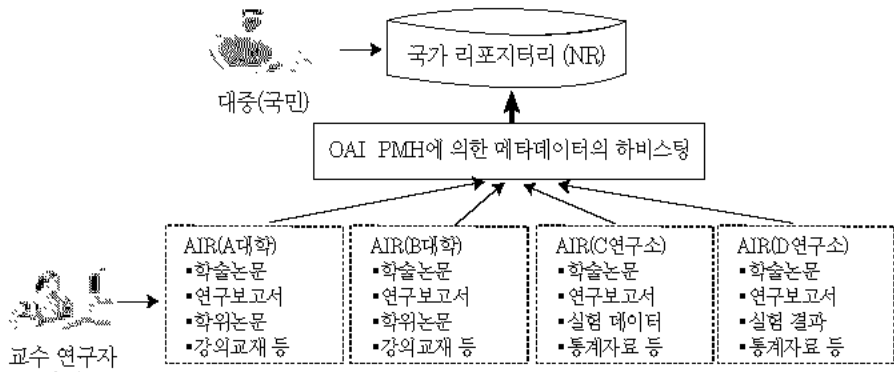
현재 오픈 액세스 운동은 1997년 ARL의 발의로 1998년 비영리조직으로 설립된 SPARC가 주도하며, 약 300개 기관(세계 각국의 대학, 도서관, 학회 중심)이 가담하고 있다. SPARC가 학술정보 유통위기를 극복할 의도로 추진하는 3대 전략은 '출판시장의 경쟁력 창출, 고액 학술지의 대체지 발간, 대학도서관의 구독 의무화'이며, 그 중에서 대체지의 온라인 제공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2월 현재 오픈 액세스 잡지(OAJ)는 총 2,017종(논문수는 8만2,680편)이며, 약 501종은 원문탐색이 가능하다(http://www.doaj.org/).

가장 최근에 오픈 액세스 운동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전략은 기관 리포지터리(IR : Institutional Repository)이다. 이것은 기존의 학술정보 출판·유통 시스템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소속기관의 저장소(repository)에 셀프 아카이브하는 것을 말한다. 그 유형은 물리학 및 관련 분야의 arXiv.org, 컴퓨터 과학 분야의 NCSTRL(Networked Computer Science Technical Reference Library) 등과 같은 학문별 리포지터리(Disciplinary Repository)와 미국 MIT대학의 DSpace, 영국 Southampton 대학의 ePrints처럼 저자의 소속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기관 리포지터리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출발점은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지만, 대체로 학술기관이 리포지터리 구

축의 주체이며, 복수의 IR를 취합한 국가 리포지터리(NR : National Repositories)가 완성될 때 오픈 액세스의 진정한 이념이 구현될 수 있다. 이를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윤희운 2005, 26).

IR의 기대효과는 학술기관 또는 자국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학술정보의 안정적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대학 및 학술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연구 활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다. 학술기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자체 생산된 학술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산학협동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연구자는 학술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한 대외적 가시성이 높아지며, 연구실적을 수시로 확인·출력할 수 있다. 외부 이용자는 NR를 통하여 다른 학술기관의 연구정보를 통합 검색·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체 등은 학계의 연구동향을 신



<그림 1> 학술(연구)기관 리포지터리(AIR/NR)의 구성도

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이 주도할 경우, 학내에서의 존재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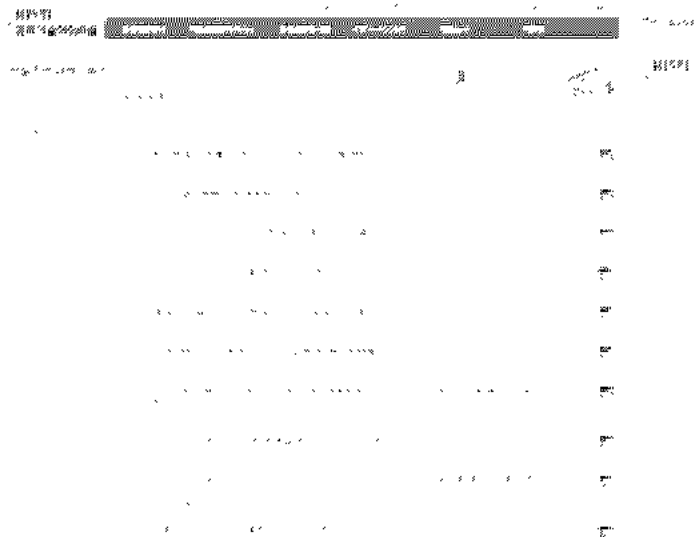
2.2 국내 학술정보 유통의 현황과 문제

국내에서 학회지 수록논문의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은 학회, 상업 출판사, 도서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학회지 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유통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상업 출판사가 주도하고 있다. 전자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이 해당하며, 후자에는 한국학술정보(주), 누리 미디어, 교보문고 등이 있으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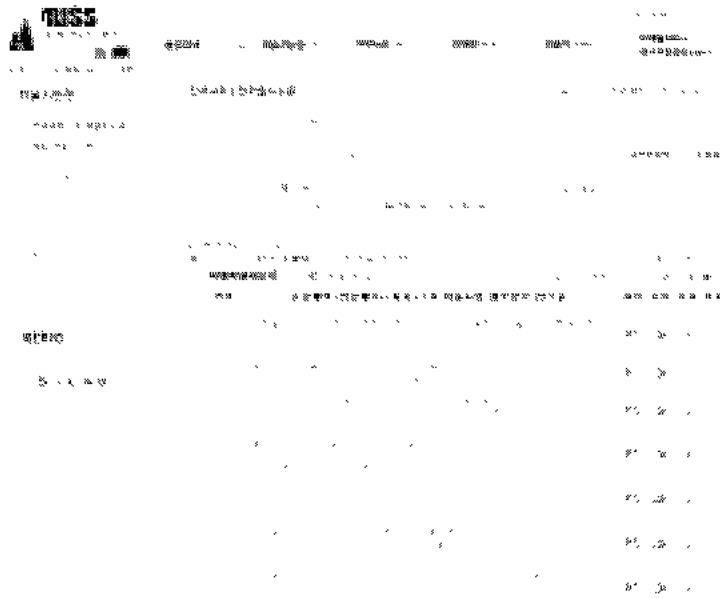
학술정보(주)가 대표적이다.

먼저 KISTI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0여개 학회의 학술정보 원문을 서지입력 및 스캔(TIFF) 방식으로 디지털화하고, <그림 2>처럼 ‘과학기술학회마을’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약 56만권의 학술지 중에서 36만권은 자체에서, 나머지 20만권은 민간업체를 통하여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일반 이용자가 과학기술학회마을에서 학술논문을 검색하였으나, PDF 파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지사항에 소장처를 명시하고 있다 (<http://society.kisti.re.kr/>).

다음으로 KERIS는 <그림 3>과 같이 인문사회 분야 100여개 학회와 450여개의 대학부설 연구소의 학술정보를 KISTI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술연구정보 검색 시스템인



<그림 2> KISTI 학술논문 검색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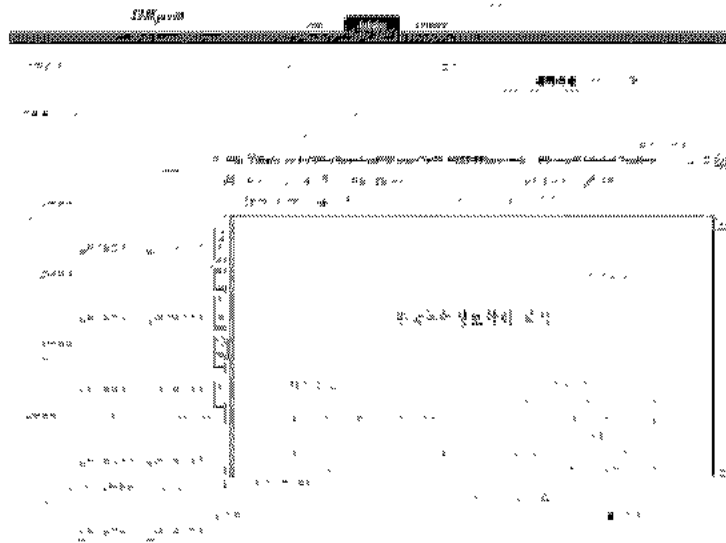
〈그림 3〉 KERIS 학술논문 검색화면

RISS(RISS4U)의 '전국대학 소장자료 검색' 내 '학회지 수록 논문'에서 회원에 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학술논문의 경우, 80여만권 가운데 30여만권은 무료로, 50여만권은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http://www.riss4u.net/index.jsp>).

마지막으로 한국학술정보(주)는 1,200개의 학회 및 연구기관과 전송권 계약을 체결하여 약 2,500종의 창간호에서 최근호에 이르기까지 약 1,400만 페이지를 DB로 구축하여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학술정보는 학술논문의 저자가 아닌 학회와 계약하기 때문에 도서관 등이 DB회사와 계약하면 〈그림 4〉의 검색화면처럼 소속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http://dbpia.co.kr/>).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회가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임의로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키거나 상업적 서비스 업체와 계약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가 이용자 및 도서관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외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고가화로 인한 제한적 이용, 라이선스 체결방식으로 인한 보존의 문제, 저작자 및 학회의 학술논문 이용의 제한성 등의 제약이 따른다. 특히 영리기관이 주도하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유통에서 주목할 점은 저작권계약의 합법성 문제이다. 국내 농업과학 분야 102종의 학회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 A라는 영리업체는 학회의 저작권계



〈그림 4〉 상호계약이 체결된 기관에서의 검색화면

약을 체결하여 42종의 학회지를 디지털화하였으나, 각각의 논문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는 2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02).

요컨대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업체를 불문하고 학술논문을 디지털화하여 신속한 접근 및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학술논문 저작권의 귀속주체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의로 계약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국내 학술논문의 디지털 유통과 오픈 액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귀속현황을 정밀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3. 학회지 논문 저작권의 귀속현황

분석

본 연구는 국내의 총 166개 학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설립연도는 1981년 이후가 전체의 71%(118개)로 나타났으며, 약 57.8%(96개)가 100~5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회지 발간횟수는 연간 4회 이상이 45.1%(75개)를 차지하는 가운데 사회과학 21개, 인문학 19개, 공학 18개, 의학학 15개 학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정보를 바탕으로 2005년 9월 현재 총 166개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을 각각의 학회지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집계되었다.

먼저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를 분명하게 명시한 비율은 30.7%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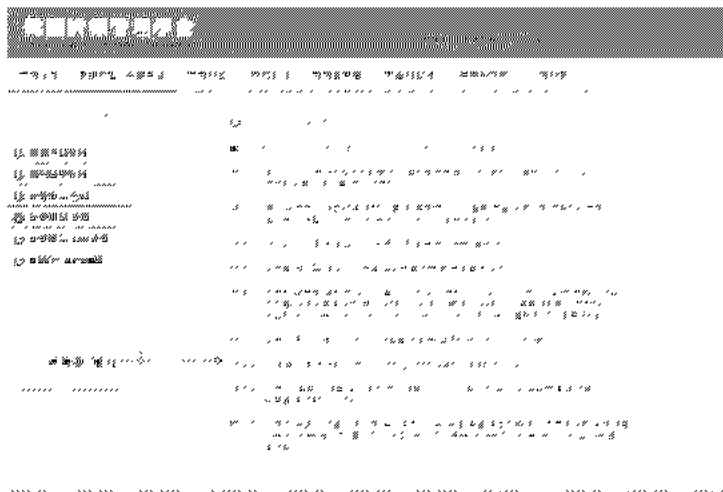
〈표 1〉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

학회 학문분야	학회	저자	학회· 저자 공동	계약사항 없음	저작권 귀속비율
인문학(55종)	5	0	1	49	10.9%
사회과학(67종)	21	0	1	45	32.8%
공학(20종)	9	0	0	11	45.0%
의약학(24종)	14	0	0	10	58.3%
합계(166종)	49(29.5%)	0	2(1.2%)	115(69.2%)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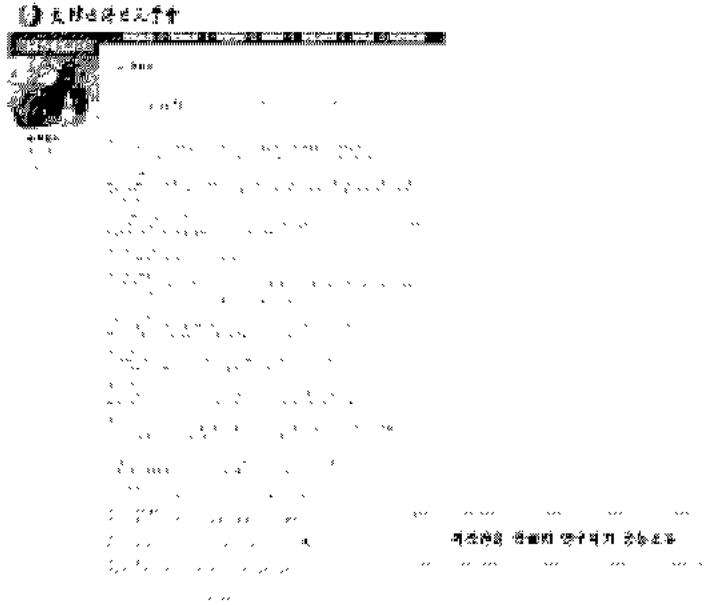
이들을 학문분야별 순위는 의약학이 5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학으로 45.0%, 사회과학 32.8%, 인문학 10.9%의 순이다.

다음으로 저작권 귀속주체별로 살펴보면 학회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는 총 49개(29.5%)이며, 이들의 학문분야별 현황은 의약학이 5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학으로 45%이며, 사회과학 32.8%, 인문학 10.9% 순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된 비율은 의약학 분야가 가장 높고, 인문학 분야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와 저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학회에서 각각 1개로 나타난 반면에, 다른 학문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각각의 논문투고 또는 편집 규정에서 저작권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는



〈그림 5〉 저작권이 명시된 학회의 논문 투고규정



〈그림 6〉 저작권의 공동소유를 명시한 학회의 논문 투고규정

〈그림 5~6〉과 같다(http://www.kosim.or.kr/html/member_02.html; http://www.jalalika.or.kr/sub04_02.php).

마지막으로 저작권 귀속문제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학회의 비율은 총 115개(69.2%)였다. 또한 학회지 논문에 대한 1차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내의 대다수 학회는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저작권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정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회나 저자가 별다른 인식을 하지 않은 채 '투고 출판'이라는 관행으로

일관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 동향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술정보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유통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학회는 디지털 유통업체와 계약하여 학회지 논문을 인터넷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회지 논문의 저자가 디지털 유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발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과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자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post print)을 자신의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도서관 또는 대학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오픈 액세스를 시도할 경우에도 저작권 귀속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결국 불분명한 저작권 귀속문

제는 학회지 논문의 소유권 자체의 모호성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를 전제로 불특정 네티즌에게 웹으로 무료 유통시키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오픈 액세스 운동의 주요 전략적 방안으로 거론되어 상당 부분이 현실화된 ASA와 IR의 핵심 대상정보가 학술논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학회지 논문 가운데 공공재원인 국가재정 또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결과물이 적지 않으며, 이들을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노력은 국가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에게도 경쟁력강화, 가시성 제고, 기관 또는 대학의 존재가치 발현, 국민의 지적 수준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문제는 ASA와 IR을 전제로 NR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학회지 논문을 자유롭게 유통시켜 디지털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학회지 논문 저작권의 개선방안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학술정보의 원격접근 및 이용(브라우징, 다운로드, 출력

등)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학회지 논문의 경우, 대다수가 저작권의 귀속문제로 인하여 원격 내지 무료접근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를 해소하려면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방안, 저자가 소유하는 방안, 그리고 저자와 학회가 공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의미와 장·단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학술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귀속시키는 방안

이 방안은 학술논문을 생산한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학회에 투고할 때, 저작권을 양도함으로써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국내 학회 중에서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소유하는 비율은 조사결과 약 29.5%에 달하였다.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학회일 경우의 장점은 모든 저자의 논문이나 개인 저자가 당해 학회지에 수록한 논문의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각 저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디지털 정보의 공유환경이 보편화 되면서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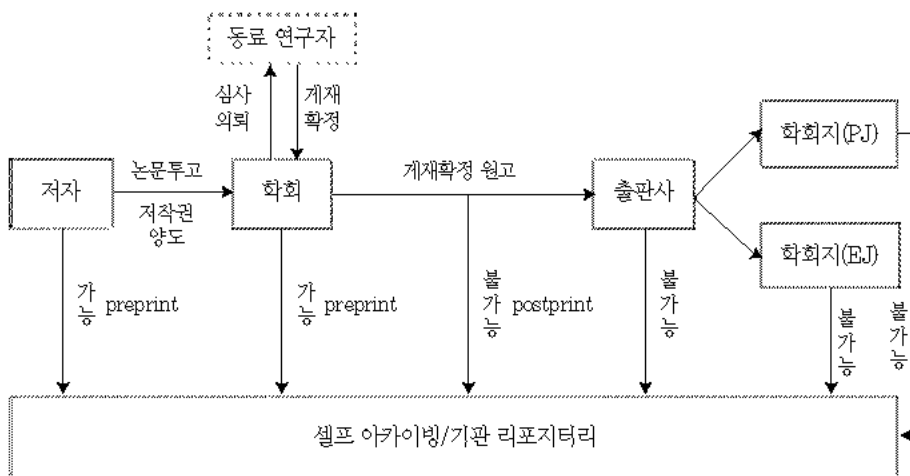
첫째, 학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수록된 내용의 책임성 문제가 대두될 때는 저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귀속주체인 학회보다 저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저작권 소유와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성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둘째,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양도될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 매체로의 변환, 상업적 이용 등으로 활용될 경우에 연구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며, 후자는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과 관련이 있다. 비록 저자가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더라도 상술한 여러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여러 논문이 학회지로 출판되고 도서관

이 구입·소장함으로써 불특정 다수(학자, 학생, 일반인)가 무료로 접근·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학회가 매체변환을 시도하여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거나 상업적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전자형태로 유료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는 목시적인 저작권 양도의 관행이 학회의 상업적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출판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학회지에 수록하는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함으로써 초래되는 최대의 문제점은 ASA나 IR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ASA와 IR의 가능성을 도시하면 <그림 7>과 같다. 즉, 저자의 논문초고와 학회에 투고한 논문원고는 아직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게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SA나 IR



<그림 7> 저작권 양도시점 기준의 ASA 가능성 여부

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심사 전 논문은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은 미완의 논문이기 때문에 그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ASA의 대상은 심사 후에 수정 과정을 거친 최종논문원고나 출판사에서 인쇄형 또는 전자형으로 출판이나 제작할 때 사용한 원고,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로 변환한 PDF, HTML 등의 파일이다. 이 파일의 저작권을 저자가 소유한다면 출판 전후에 ASA나 IR을 통하여 저자의 홈페이지나 기관의 포털 사이트로 무료 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학회나 출판사의 수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되는 한 그것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극히 일부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무료 공개함으로써 저자나 이용자에게 유익하고, 특히 국민의 세금 등 공적 연구지원비로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모든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접근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이용자의 기회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디지털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술정보의 온라인 유통 패러다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작권이 학회로 양도되는 방안과 관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영미 양국에서 제기하여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픈 액세스 운동이 반증하고 있다.

4.2 학술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

이 방안은 학술논문을 생산한 연구자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때 출판권 및 배포권만 양도할 뿐 저작권 전체를 일괄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저자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 학회를 조사한 결과, 이 방안을 채택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학술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안의 최대 장점은 첫째, 오픈 액세스의 핵심 매뉴인 ASA가 자유롭다는 점이며, 다수 저자의 ASA 사이트를 모은 IR도 쉽게 구축할 수 있다. 환언하면 IR은 ASA를 전제로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특히 학회지의 투고 규정 등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전무한 경우에는 IR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이 모든 저자나 학회를 상대로 저작권을 양도 내지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ASA나 IR에 접속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양질의 학술논문에 무료로 접근·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면 학회는 학회지 유통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에 저자 자신의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도서관 또는 대학의 웹 사이트에 ASA를 통한 오픈 액세스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저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권 대신 출판권만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연구물을 국내외 동료나 후학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자에게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으며, 내 티즌도 저자의 홈페이지나 아카이브 사이트를

〈표 2〉 출판사 및 잡지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 허용비율

구분	잡지수	비율(%)	출판사수	비율(%)
공식적으로 불허	1,793	17	37	42
일부 허용(pre-print)	3,253	30	7	8
일부 허용(post-print)	1,772	17	14	16
모두 허용(pre-print/post-print)	3,855	36	30	34
계	10,673	100	88	100

방문하여 무제한적으로 전문을 브라우징, 출력,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귀속시키는 문제는 많은 제약과 취약점을 수반한다. 우선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학회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셀프 아카이브와 무료 이용에 따른 재정적 악화, 즉 개인의 학회가입 및 회비납부의 저조, 상업적 기관과의 디지털 유통계약에 따른 수익창출의 불가능, 주류고객인 도서관의 학회지 구독축소 내지 취소가 우려된다. 〈표 2〉에 집계한 외국 출판사 및 잡지의 ASA 허용비율이 반증한다(윤희운 2005, 24)

ASA를 공식적으로 불허하는 출판사와 잡지수의 비율은 각각 42%와 17%에 달하며, 특히 심사 후 또는 출판 후 논문의 일부에 대한 ASA를 허용하는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출판계는 학회지의 출판을 전후로 ASA를 통하여 원문이 무료로 제공될 경우에 논문심사·잡지출판·배포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여 저작권의 양도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통상 6개

월~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Harnad and Tim Brody 2004). 그 대상물이 어떤 형태이든 ASA를 인정하는 잡지의 비율은 83%, 출판사의 비율은 58%에 달하지만, 출판사의 경우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42%에 달하며, 출판된 논문만 일부 인정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결국, 출판사의 우려와 낮은 인정비율이 최대 장애요소를 알 수 있다.

현행 학회지 출판구조에서 ASA와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우선 저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심사 전후의 논문 가운데 어떤 것을 아카이브하고자 하는 지, 양자를 모두 원하는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정보시대에 걸맞게 민간차원의 유통기능도 촉진되어야 하는데, 저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면 모든 저자와 접촉 및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유통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요컨대 공공부문과 민간업체가 상호 경쟁하면서 협력하여 디지털 유통환경을 구축하고 학술논문에 대한 접근·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저작권이 저자에게 귀속될 경

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작권의 저자 귀속방안은 ASA와 IR의 최대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학회활동의 위축과 재정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Gadd, Oppenheim and Proberts 2003).

4.3 학술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는 방안

이 방안은 <그림 8>에 도시한 것처럼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특히 심사과정을 거친 최종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채택한 학회는 조사결과,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각각 1개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경우, 학회지 논문의 디지털 공유는 그 당위성과 유용성, 이용자의 선호도,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기 어렵다. 저작권의 공유방안은 학회 또는 저자의 일방에게만 귀속되는데 따른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장점을 유지·확대하는 대안으로서 다음에 적시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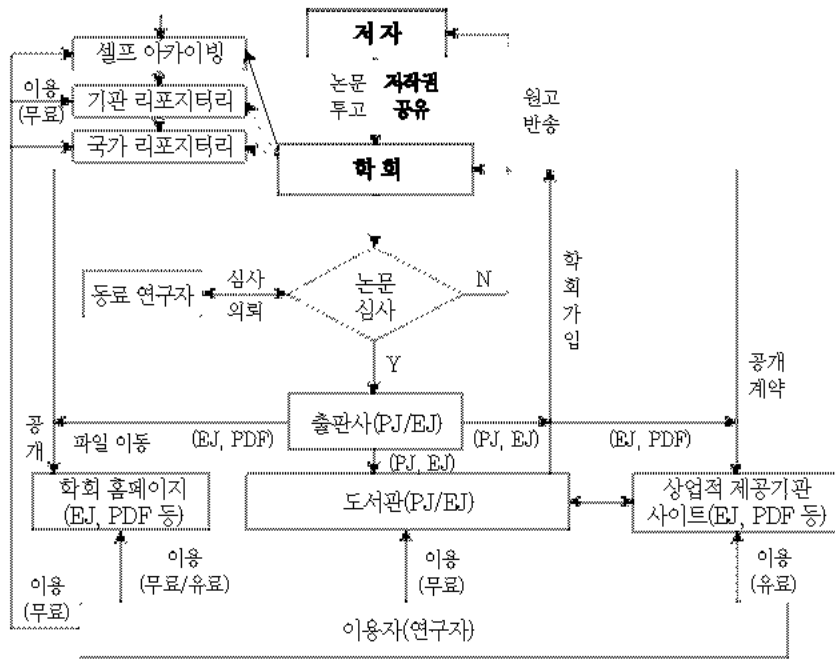
첫째, 저자의 입장에서는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보호함으로써 침해 가능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저자 자신도 공유함으로써 심사과정을 거친 최종원고를 디지털 형태로 ASA할 수 있다. 이것은 소속기관의 IR 단초가 되며, 나아가 NR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학회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저자와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학회는 최종원고를 출판사가 인쇄하여 회원 및 도서관계에 배포함으로써 학회 본연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자와의 합의 하에 상업적 제공기관과 디지털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 소속된 대학 등은 모든 구성원의 학술논문을 IR에 축적하는 데 유리하다. 지금까지 제기된 IR의 최대 저해요소는 소요비용이 아니라 저작권을 양도받는 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생각된다. 가령 어떤 대학의 모든 연구자가 각각 학회와 저작권을 공유할 경우에 ASA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수합하면 IR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등이 IR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자 내지 학회와 개별적으로 저작권의 양도 내지 허용을 협의해야 하며, 일부라도 거부할 때는 충실한 IR를 구축할 수 없다.

넷째, 학술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와 학회가 공유할 경우에 가장 큰 수혜집단은 이용자일 것이다. 만약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할 경우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학회에 귀속될 경우에는 학회가 상업적 제공기관과 일방적으로 디지털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SA와 IR도 어렵게 되어 결국 이용자의 무료이용 또는 온라인 접근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림 8〉 저자·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학회지 유통과정

따라서 저자와 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면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 및 사이트, 즉 ASA, IR, NR, 학회 홈페이지, 도서관, 상업적 제공기관을 통하여 무료 또는 유료형 학술논문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컨대, 저작권 공유방안은 선택의 다양성과 접근 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나 공유할 경우에 초래될 역기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마도 최대의 문제점은 학회가 출판사를 통하여 학회지를 출판 및 배포하거나 상업적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키는 시점을 전후로 저자도 ASA나 IR를 통하여 유통·제공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도서관이 인쇄형 학회지를 구입하거나 전자잡지의 라이선스를 확보하

기보다는 ASA 및 IR에 접근하여 학술논문을 이용하는 상황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학회와 상업적 제공기관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저자에게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조치(embargo)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가.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가치규범과 전제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모든 저작물의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저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그것이 전제될 때 ASA가 가능하다. 그것은 학술 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OAI 기반의 IR

또는 개인의 웹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다. 부연하면, 저자가 생산한 자료를 서버에 축적하고 출판사와 무관하게 웹 상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개념이다(윤희훈 2005, 22-23). 일반적으로 OAJ의 경우, 인쇄형 학회지와 마찬가지로 심사과정을 거쳐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출판사에 귀속되는 반면에, 미출판 논문원고의 저작권은 저자가 보유한다. 따라서 심사 이전의 논문원고를 개인 사이트나 소속기관의 서버에 축적하여 무료로 제공할 때는 저작권이 걸림들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판된 논문의 파일을 축적할 때는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논문 게재료를 부담하면서 저작권마저 양도해야 하므로 오픈 액세스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학술논문의 경우에는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양도여부를 불문하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ASA의 측면에서 보면, 저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권 귀속문제, 환언하면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의 ASA 허용여부 등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ASA가 법적 문제라기보다 정보공개 및 접근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출판사는 일정 기간에 한하여 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면, 출판사의 저작권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의 학술논문을 이용할 때 무수한 저자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요컨대

ASA를 위한 저작권은 출판사나 저자의 권리 내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 또는 개별기관의 입장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오픈 액세스 운동의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1665년에 Oldenberg가 세계 최초의 학술지인「철학회보」를 창간할 때의 초심인 학술정보의 공식적 채널을 통한 공개성과 신속성을 국내 학회지도 보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회의 본질적인 존립이유는 수익창출이 아니라 학술활동의 활성화이고, 그 절대적 수단이 학술지임을 감안하면 학술정보의 신속한 유통에 더 주력해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 채널과 수단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회는 학회지의 인쇄형과 전자형, 학술논문의 ASA와 IR을 통하여 잡지단위 또는 논문단위로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부터 학술정보 유통과정에서 연구자가 생산한 학술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1차적으로 연구자에게 귀속되어 왔다. 그러나 학술정보에 대한 배포를 학회가 아닌 상업적인 출판사가 담당하면서 학술정보의 광범위한 확산을 이유로 연구자의 저작권은 출판사에 양도되었다. 이것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생산된 학술정보가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영리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즉, 학문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학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학계 밖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연구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쉽게 제공하거나 이용시킬 수 없게 되

었다.

그러므로 현재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학술정보를 원활하게 유통시켜 국가차원의 학술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최근 들어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저자가 대학에 논문을 제출할 경우 저작권 동의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을 양도하고 있고, KERIS나 KISTI에서도 NR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학회지 논문의 경우는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을 방지한 채로 도서관이 학술정보의 디지털 접근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나, 기관 또는 국가가 디지털 학술정보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말의 성찬에 불과할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상황에서는 ASA, AIR, NR를 하는 데 많은 제약요소가 실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가 저작권의 불명확성이다. 이를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할 책임은 학술정보 유통을 주도하는 저자, 출판사, 학회, 도서관에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과 해결이 국내 학술정보의 유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선의 방안은 국내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와 학회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하는 조치가

가 필요하다.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소유한다. 다만, 저자가 논문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유통·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와 협의해야 한다.

둘째, 차선책으로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소유할 경우에는 심사 후에 편집과정을 거친 최종원고, 즉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과 내용 및 체계가 동일한 논문을 저자가 요청할 경우에 저작권을 양도하여 ASA가 가능하도록 논문투고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다만, 저자가 셀프 아카이빙이나 기관 리포지토리를 목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수정된 최종원고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에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학회의 디지털 유통권, 도서관 등에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송권, 그리고 다른 상업적 유통기관의 배포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회의 디지털 유통권과 도서관 등에 대한 원격 온라인 전송권을 허용해야 하며, 상업적 유통기관을 통한 배포권은 학회에 위임한다

이상에서 제안한 3가지 개선방안 중에서 학술논문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외국 의 관행에서 초래되는 부작용과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비율이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학회가 투고논문의 저작권을 모든 저자에게 양도하거나, 역으로 학회만 소유하는 방향으로 귀속문제를 규정하는 것 보다는 양자가 공유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해법 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학술정보 유통은 저자로부터 출판사나 도서관과 같은 중간매체를 통하여 이용자 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한 학술지는 17세기 중엽에 연구집단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도구로, 단행본 출판에 따른 시간지체를 개선하는 수단과 학술업적을 공인하는 지표로 등장하였다. 그 이후 대학, 학회, 상업출판사, 기타 단체가 학술지 출판에 주력함으로써 양적 및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고, 학술정보 유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정보 유통에서 핵심 정보매체인

학술지는 최근에 지나친 상업화와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부담능력이 약하거나 미약한 국가,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접근과 이용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무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근에 ASA, AIR 등이 실용화 단계에 있으나, 저작권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동향에 주목한 본 연구는 국내 학술정보의 유통실태 및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하고 3가지의 대안, 즉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방안,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안, 저자와 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학회지의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귀속시키는 방안은 29.5%가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저자에게 귀속시키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학회와 저자가 학술논문의 저작권을 공유하는 방안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각각 1개의 학회가 채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첫째, 최선의 방안은 국내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와 학회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에 저작권을 공동소유하는 내용(복제권, 전

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과 저자가 논문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키거나 공개할 경우에 반드시 학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소유할 때는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저자가 요청할 경우에 저작권을 양도하여 ASA가 가능하도록 투고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학회의 디지털 유통권, 도서관 등의 원격 서비스를 위한 전송권, 그리고 상업적 유통기관의 배포권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개선방안 중에서 대다수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외국의 관행에서 초래되는 부작용과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면 투고논문의 저작권을 일방(학회 또는 저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양자가 공유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을 방지한 채 오픈 액세스와 리포지터리를 논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이다. 따라서 학술정보 유통집단(도서관, 출판사, 학회, 저자, 이용자)은 학술논문의 저작권문제를 공동의 현안으로 간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그것의 유통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미, 이나니. 2005. 대학 학술정보 관리를 위한 오픈 액세스 기반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방안 연구. 『정보관리연구』, 36(2): 45-71.
- 김성혁 외. 1999. 『지식기반사회 초기 정착을 위한 국가 학술정보 공유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 KRIC.
- 나와코타로. 2003. 『학술정보와 지적소유권 : Authorship의 시장화와 전자화』, 우인하 역.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윤희운. 2002. 『정보자료 수집규모 최적화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윤희운. 2003. 학술지의 디지털 아킬레스 건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43-66.
- 윤희운. 2005. 학술정보 유통위기 및 해소전략의 해부. 『정보관리연구』, 36(1): 1-32.
- 윤희운. 2005. 지식정보와 국가경쟁력의 함수관계. 『지식정보공유』, 제4집: 1-35.
- 이두영, 황옥경. 2003.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동향: 자유이용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4(2): 1-23.
- 이상호, 황혜경, 김혜선, 정경희, 설문원. 2004. 『오픈 액세스 기반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 공유체제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정경희. 2002.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저작권을

-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4): 383-399.
- 최재황. 2002. 국내 학회발행 학술잡지의 전자저널 출판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39-54.
- 최재황, 조현양. 2005. 오픈 액세스 운동의 동향과 학술적 이해관계자의 대응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2(3): 307-326.
- 時實 象一. 2004. 오픈 액세스의 동향. 『情報管理』, 47(9): 616-624.
- Antelman, Kristin. 2004. "Do Open Access Articles Have a Greater Research Impac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5(5): 372-382.
- Bocquet, Antoine. 2004. *Alternatives for STM Publishing in the Internet Age : A Personal View*, [cited 2006, 1, 13].
 <<http://www.stic.gov.tw/fdb/tr/2004.html>>.
- Case, Mary M., and Matz, Judith. 2003. "Framing the Issue : Open Access." *ARL* 226 (February), [cited 2006, 1, 17].
 <http://www.arl.org/scomm/open_access/framing.html>.
- Day, Michael. 2003. "Prospects for Institutional E print Repositories in the United Kingdom." *Eprint UK Supporting Study*, No.1.
- Gadd, Elizabeth, Charles Oppenheim and Steve Proberts. 2003. "RoMEO Studies 1 : the Impact of Copyright Ownership on Academic Author Self Archiving." *Journal of Documentation*, 59(3): 243-277.
- Gass, S. 2001. "Transforming Scientific Communication for the 21st Century." *Science & Technology Libraries*, 19(3/4): 3-18.
- Harnad, Steven. 2003. "Open Access to Peer Reviewed Research Through Author / Institution Self Archiving : Maximizing Research Impact by Maximizing Online Access." In *Digital Libraries : Policy Planning and Practice*, Edited by Derek Law and Judith Andrews Burlington, VT : Ashgate.
- Harnad, Stevan and Tim Brody. 2004. "Comparing the Impact of Open Access (OA) vs. Non OA Articles in the Same Journals." *D Lib Magazine*, 10, [cited 2006, 1, 11].
 <<http://www.dlib.org/dlib/june04/harnad/06harnad.html>>.
- Jones, M. 2003. *Archiving E Journals Consultancy : Final Report*, [cited 2006, 1, 20].

- <http://www.jisc.ac.uk/uploaded_documents/ejournalsfinal.pdf>.
- Markovitz, B.P. 2000. "Biomedicine's Electronic Publishing Paradigm Shift : Copyright Policy and Pubmed Central." *JAMA*, 7(3): 222-229.
- McCabe, M.J. 1999. "The Impact of Publisher Mergers on Journal Prices : An Update." *ARL Bimonthly Report*, 207, [cited 2006, 1, 5].
<<http://www.arl.org/newsltr/207/jrnprices.html>>.
- McVeigh, Marie E. 2004. *Open Access Journals in the ISI Citation Databases : Analysis of Impact Factors and Citation Patterns*. [cited 2006, 1, 13].
<<http://www.thomsonisi.com/media/presentrep/essayspdf/openaccessitations2.pdf>>.
- Prosser, David. 2002.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21st Century :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and Models*.
- Rowlands, Ian. 2004. "Do Authors Demand Open Access?" In *STM Publishing : at the Crossroad? : Challenges and Response : 2004 STM Annual Conference*, 5th October, Frankfurt.
- SPARC. 2004. *The Case For the Institution Repositories : A SPARC Position Paper : Essential Elements of a Institutional Repository*. [cited 2006, 1, 22].
<http://www.sparceurope.org/whitepaper/wp_07_instit.html>.
- Ware, Mark. 2004. "Institutional Repositories : The State of Player." In *PALS Conference 2004 : Institutional Repositories and Their Impact on Publishing*, 24 June,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